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워십
1부/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유형석 집사 2부/이국선 장로 3부/윤태경 집사 4부/이진호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콰이어
1부/하나님의 전신갑주(심신웅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 4부/갈라디아서(Gal.) 6:12-15..... All together 다같이

말씀 Message 1, 2, 3, 4부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영수증 없는 인생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갈보리 산위에(찬135/새150장), 무엇이 변치 않아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 Rev. Moses Hwang 황모세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동사목사 칼럼
Pastor's Column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을 보내며

Reflecting on Our First Sunday at Bethel Church



황모세 목사 / Rev. Moses Hwang

드디어 그날입니다.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아이들에게 내일의 일정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주의 사항(?)을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함께 인사드리는 날이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부 예배 시간에 맞춰 가려면 무엇보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가족 모두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새날을 깨우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6시에 있는 예배 전 목회자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을 아내에게 부탁하고, 홀로 깜깜한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길을 지나 비전주차장으로 들어서니 벌써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셔틀 봉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 주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차량 봉사를 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리라 다짐했기에, 마치 익숙한 길인 것처럼 목회자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도 이미 와 계신 목사님들이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모를 때는 앞사람을 따라가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따라 기도회 장소인 코트야드로 내려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역시 베델교회!'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끝나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커피 향을 따라 카페로 들어섭니다. 이곳에도 이미 모든 섬김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환한 미소로 건네는 인사에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1부 예배.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강단에 섭니다. 강단 위에서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들을 바라보니 앞으로 함께하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가 가슴 깊이 밀려옵니다. 1부에서 시작된 인사는 4부 예배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비전주차장에서 처음 맡았던 섬김의 향기가 코트야드의 텐트 아래에도, 교육부의 여러 부서에도, 주방과 카페에도, 예배실 구석구석에도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손길이 또 한 번의 주일예배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해 보낸 베델교회에서의 첫 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낯선 사람을 만날 날도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만남들이 마음에는 그리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낯선 얼굴들 속에서 낯설지 않은 한 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베델교회에서의 낯선 첫 주일, 낯설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At last, the day had come—our first Sunday at Bethel Church! On Saturday night, I went over the next day's schedule with our children and gave them a few final reminders—perhaps a little more firmly than necessary. Since it would be our family's first time greeting the entire congregation, I could not help but feel a little nervous. The first challenge, of course, was simply getting everyone up early enough for the first service. We went to bed with excitement, anticipation, and just a touch of nervousness.

At 5:00 a.m., the alarm announced the beginning of a new day. Leaving the children with my wife, I headed out alone into the darkness for the pastors' prayer meeting at 6:00. When I pulled into the Vision parking lot, several cars were already there. The shuttle volunteers welcomed me with bright smiles. I wondered how anyone could look so cheerful that early in the morning, but after a few warm exchanges, I was already on my way to church. Everything still felt unfamiliar, but I had determined to act as naturally as possible. So I walked into the pastors' office as though I had done it a hundred times before. After greeting the pastors, I followed one of life's timeless rules: when you do not know where to go, follow the person in front of you. That led me to the courtyard, where the pastors gathered in the early morning darkness to pray for the worship services and for the congregation. Watching them pray, one thought quietly rose in my heart: "This really is Bethel Church." After prayer, I followed the irresistible aroma of coffee to the café, where more volunteers were already prepared to serve. Their warm smiles seemed to brighten the still-dark morning. Then the first service began. As I stood before the congregation for the first time, I was reminded once again that God's people are among the most beautiful sights one can see from a pulpit. Looking at their faces, my heart filled with gratitude and anticipation for the days ahead. Those greetings continued from the first service all the way through the fourth.

The fragrance of service that began in the parking lot seemed to be everywhere—in the courtyard, the children's ministries, the kitchen, the café, and every corner of the sanctuary. Seen and unseen, countless faithful hands were once again making Sunday worship possible. I met more unfamiliar faces that day than I can remember meeting in such a short time. And yet, strangely, they did not feel unfamiliar. Perhaps it was because, in those unfamiliar faces, I caught a glimpse of a familiar face. The face of Jesus. And so our family came home from our first Sunday at Bethel having encountered, in a new and unfamiliar place, the One who has never been unfamiliar to u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황모세 목사

영수증 없는 인생 갈라디아서 6:12-15

1.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12-13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두 가지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2.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낸 종교적인 성과를 자랑하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다. 13-14절에서 이 두 자랑은 어떻게 대비되는가?
3.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서도 삶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할 때가 있다. 자신의 행위나 열심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4. 바울에게도 혈통과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열심 등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바울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5. 바울은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6. 우리는 때로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 함께 나누어 보자.

적용하기



예배 간증 수요저녁예배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작년부터 저녁으로 변경된 수요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빈자리가 늘어 안타까웠습니다. 저 역시 피곤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기 쉽지 않았지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봉사자로 섬길 은혜를 허락하셨고,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8월부터 시작된 담임목사님의 마지막 수요말씀여행 '인생 바다에서 만난 구명선'은 제 신앙에 깊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코트야드와 주차장까지 가득 메운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큰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 마음에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담임목사님께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시며 돈과 성공, 건강과 인간관계는 영원한 구명선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정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돌아보며 평안할 때 든든해 보였던 것들도 폭풍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명선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이 단순한 천국의 약속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제 영혼의 빈자리를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참된 구명선임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요말씀여행을 통

해 전해질 말씀을 사모하며, 구명선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처럼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나를 살리신 구명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종철 집사



예살채플 부부수양회

사랑의 방향



세미나 중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배우자가 쓰러져서 평생을 병간호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니?' 바로 '네'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벽이 나의 앞에 있다면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만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입을 열었

습니다. 비록 인간의 사랑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주신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삶의 방향과 목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랑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질될 수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구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고요히 잠든 밤, 산길을 내달리며 저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 부부는 꾸준히 큐티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와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국진/조윤정 집사

Come&See 50 특집 13

베델의 여정

'참 잘 오셨습니다!'는 베델교회의 아이코닉한 인사 문구입니다. 저도 처음 베델교회에 왔을 때 들었던 인사말인데,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받은 은혜를 돌이켜 보면 베델교회로 온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베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감동 넘치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 감동이 가장 컸던 3가지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일 대각성 기도회입니다. 2011년 8월의 무더위 속에 진행된 대각성 기도회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진행된 대규모 영성 회복 집회였습니다. 매일 1,500명 넘는 성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면 됩니다'를 부르짖고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두 번째는 매년 새해에 개최되는 엘리야 특별 세

순종과 헌신이 함께한 시간

벽기도회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기도회는 새해를 기도로 여는 모임으로, 온 세대가 참여하여 한 해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이른 새벽 잠이 덜 깬 아이들을 등에 업고 본당으로 달려오는 성도님의 모습, 그리고 새벽의 어둠을 깨고 교회 주차장으로 물밀듯 몰려드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사역입니다. 2004년 한국과 미주 지역 목회자들 2,000명이 LAX 호텔에 모여 통국 기도로 북한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후 수년간 미주 지역 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하는 횡발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에는 베델교회에서 제1차 크리스천 북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세들에게 북한의 참상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KCC 사역은 매년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LAX에서 통국 기도를 하는 동안 북한 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

과하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베델교회의 북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 주시는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베델의 수많은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주신 계획을 겸손히 수용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50주년을 맞이한 베델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더욱더 순종하여 더 많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허용진 장로



세례 간증

유아세례

은혜로 만난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아이, 하엘이가 유아세례를 잘 받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

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엘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보내주셨음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하엘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지혜로 양육하고, 하엘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신청했습니다.

8월 30일, 사랑하는 베델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엘이가 세례를 받은 순간은 우리 가정에 참 특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교육부터 많은 것을 도와주신 목사님, 가족, 셀 식구들 그리고 영아부 친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엘이를 키워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엘이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도 감사와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오현민/임지연



저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신앙의 어려움과 흔들림을 지나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고, 아

내인 저는 가족의 신앙적 본과 훈련을 통해 예수님

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으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쁨인 회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맡겨 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회주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고, 부모로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회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주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도 부모로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회주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종/심지혜

교회학교

Promise Of Purity

흔들려도 다시!



POP(Promise of Purity) 학부모 강의를 들으며, 저는 미국의 현재 성문화와 성교육의 현실을 생각보다 훨씬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POP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 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성교육 은 저에게 단순히 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었고, 아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서약식과 함께 마무리된 POP가 끝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노을이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만지시고,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두 자녀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남궁유주 집사

처음 POP를 등록하면서, 혹시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르쳐서 소위 말하는 '딱 막히고 고리타분한 아이들'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오히려 그동안 제가 세상의 변화에 맞추느라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씩 놓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삶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 된다는 것이 제게 참 크게 다가 왔습니다. 이번 POP는 오히려 부모인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모든 선택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부모에게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유재열 집사

저는 이번 POP에 선생님으로 또 학부모로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저희 아들들도 초·중·고등학생 때 이 교육을 받았고 큰아이는 이번에 선생님으로 섬겼습니다. 둘째는 TA로 섬겼는데 교사 미팅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really needed this reminder.' 저는 그 말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말 속에 '내가 어느 순간 타협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하나님 이 무서워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

고 기다려 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번 POP가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아이들의 걸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우정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동사목사: 황모세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수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수채플: 공병주 목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인턴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수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ack to Bethel

베델 성도 여러분, 현재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포함해 베델에서 자라난 모든 자녀들을 'Back to Bethel - a Homecoming'에 초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 세대까지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뜻깊은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자란 2세들의 90%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델의 자녀들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아픈 현실 앞에서 Back to Bethel은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3대, 4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는 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먼저 한 번의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알고 계신 베델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연락하여 초대해 주십시오.
- 둘째, 정성껏 후원해 주십시오. 큰 금액보다 많은 분들의 작은 정성이 더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사역을 세워 갑니다.
- 셋째, 기도도 함께해 주십시오. 떠난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델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모든 성도님의 사랑과 기도와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일시: 11월 21일(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베델교회(코트야드에서 식사, 본당에서 예배)
- ▶ 문의: 김인규 장로 (949)331-8419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	10/4:	①부-이상태	②부-이봉운	③부-이상노	④부-권승재
	10/11:	①부-이상원	②부-이석희	③부-이완희	④부-이정수
	10/18:	①부-이승호	②부-이선갑	③부-이우용	④부-김문정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월)	10/3:	이현동	10/10:	김정범	10/17:	이영복	10/24:	이희정
강단꽃(9,10월)	9/27:	선상균, 윤태경	10/4:	김순옥, 엄기환	10/11:	윤성자, 윤주원, 최경식	10/18:	이수민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Charles Oh(ENT),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이옥선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더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황모세 목사와 떠나는 수요일섬여행** 'Kingdom Perspective: Covenant'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라를 알아가는 8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전의 구원 계획에서 노아/아브라함/모세/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거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알아가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30일(수) 저녁 7시, 본당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셀목자 정기모임** 셀목자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따뜻한 식사와 더불어 축복과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3일(토) 헵시바 새벽기도회 후, 체육관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 및 교회 리더십분들과 함께 하는 만찬과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5시(4시 20분부터 담임목사와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
장소: 비전채플
문의: 석승진 장로 (949)232-0872, 황익진 집사 (949)929-5620

◆ **OICOS 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신혼부부/기쁨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0월 6일(화)~9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및 OICOS 예배 특송: 신혼부부/기쁨목장(박경철 목사 담당)
OICOS 예배 일시/장소: 10월 10일(토) 오전 6시, 본당
OICOS 강사: 황모세 목사

◆ **김한요 목사 주일설교 USB 판매** 김한요 목사의 주일설교 "Come & See 50-미라클"과 "LAFC-호세아서 강해"의 전편을 담은 USB를 코트야드 부스에서 판매(각 \$10)합니다. 전도에 널리 활용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전액 베델장학사역을 위해 쓰여집니다.

◆ **세례/입교 신청**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22일 주일에 3부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오리엔테이션, 세례 교육 및 문답 리허설을 참석과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살, JM, 소망부는 각 부서별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청 기간/방법: 9월 20일(주일)~10월 11일(주일), 홈페이지 및 QR 코드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과 CIM 이상)
전체 오리엔테이션: 10월 11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대상: KM 성인, 예살, 중고등부(BYM과 CIM), 신청 학생의 학부모
교육 일시: 10월 18일(주일), 10월 25일(주일), 11월 1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임마누엘채플
전체 리허설: 10월 21일(토) 헵시바 새벽기도회 참석 후 오전 8시, 본당
문답 일시: 11월 1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 **교회학교 캔디드라이브** Family Fall Fest(10월 31일)에 자녀들을 위해 사용될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견과류 제품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기간/대상: 9월 27일(주일)~10월 25일(주일),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화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주성필 목사 취임예배 안내** 10월 4일(주일) 오후 4시에 팔로마 한인교회에서 주성필 목사 취임예배가 있습니다. 버스를 준비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큐티인 10월호 판매** QTin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이영석/최소진 집사의 가정에 딸 이선하(Iris)가 9월 22일(화)에 태어났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Moses Hwang

A Life Without Receipt

Galatians 6:12–15

1. Judaizers did not believe that the cross of Jesus Christ alone was sufficient, teaching that the Galatian believers must also be circumcised. In verses 12-13, what two reasons does Paul point out for why they did this?
2. The Judaizers boasted about their own religious accomplishments. However, Paul boasted about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n verses 13-14, how are these two boasts contrasted?
3. Even as we believe that salvation is God's grace,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judge our relationship with God based on how well we have done or how devoted we have been. What problems arise in faith when we begin to use our own deeds or zeal as the basis for God's acceptance?
4. Paul also had much to boast about, including his lineage, knowledge of the Law, and religious zeal. However, after meeting Jesus Christ, he boasted in nothing else but the cross. Why was the cross able to become Paul's only boast?
5. Paul states that 'being a new creation' matters far more than whether one is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The Gospel does not simply make us slightly better religious people; it is the work of God making us new in Christ. Through these words, what aspect of your faith are you led to reflect upon again?
6. At times, we present our good deeds before God, or conversely, fear that we won't receive God's love because of our shortcomings. What boasts and fears are you holding onto right now? Let us lay it down at the foot of the cross and share what we will hold onto as we live out this week.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